

# 전남, 작년 학교폭력 가해자 646명... 고교생 '최다'

### 물리적 폭력·성폭력·갈취 순 112신고 분석...전년비 16% ↑

전남지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이 646명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소년범 중에서는 중3년생인 15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8일 전남경찰이 학교폭력 112 신고·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는 646명이었다. 전년(554명)대비 92명(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이 329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162건(25%), 갈취 58건(10%), 협박 40건(6%)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 대비 금품갈취(107%)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고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고등학생(209명)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170명), 기타 학생(155명), 기타 청소년(59명), 초등학생(53명) 순으로 많았다. 기타 학생은 각종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생이다. 기타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이다.

112 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은 43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신체폭력은 237건, 경미한 내용이나 오인신고는 114건이다. 1급지학교 신고 비율이 57.1%(248건)으로 가장 높고, 2급지 26.2%(114건), 3급지 16.5%(72건) 발생했다. 신체폭력 사안이 237건(54.6%)였다. 기타·학폭 외(26.2%), 언어폭력(5.2%), 금품갈취(4.1%)순이었다.

신고 장소는 학교내·운동장 등 학교 인근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는 학교 시간 무렵인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27건으로 집중됐다. 5시간 동안 1시간당 평균 45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범죄발생 세부 연령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범(10세~18세) 2910명을 분석한 결과로는 중학교 1학년인 13세를 기점으로 소년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년생인 15세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목포(105건)였고 학폭 가해자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134명)이었다.

전남경찰은 목포와 여수, 순천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55% 이상 발생하고 학교 인근에서 중학생의 신체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검거 건수 10%감소를 목표로 잡았다. 경찰은 학교폭력 KICS 검거체계 현황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발생 유형·시간·장소 등 통계분석하고 주요 위기청소년(학폭 가·피해자)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 아동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학교·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등을 통해 학교시간 학교주변 안전활동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경찰청 결과를 참고해 각 시군별 분석과 지역 특색에 맞는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공유해 주민과 함께 청소년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song@nibo.com



지진 대피 훈련 광주 북구 태봉어린이집 아이들이 8일 태봉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함께 지진 발생을 가정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선거사범 잡아라”... 경찰, 특진 걸고 단속

### 광주경찰, 사전투표 590명 투입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부정선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승진까지 걸고 선거범죄 대응에 나섰다.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이송되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4·10총선 관련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개표 부정행위 등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 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일인 5·6일 집배원이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 용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다. 기존에는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외 사전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인계하는 데까지만 경찰관이 입회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우체국 접수 이후 우편집중국과 배달우체국을 거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되는 전 과정에 집배원 1명당 경찰관 1명이 따라붙었다.

광주 사전투표소는 총 96개소로 광산·동부·서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거쳤다. 남구·북구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관위로 향했다.

이번 사전투표에 광주경찰은 590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중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 단속에 기여한 경찰관을 특진시키기로 했다”며 “공정·투명하고 반칙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내연녀 아이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공무원 집유

내연녀의 아이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웅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

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가정이 있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B양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 WE THE ROSE

## The R·E·D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2024. 5. 17. - 26. 곡성 섬진강기차마을